

# 대안교과서 시장 경쟁 치열하다

국어, 역사과목 분야에서 활발해...

학생들 실생활에 밀착된 교육내용으로 승부 걸어

제도권 교육의 틈새를 노리는 출판기획물들이 차례차례 나오고 있다. 그동안 교육현장에서 알게 모르게 활용돼온 교사들의 연구성과물들이 이제 정식출판물로 그 형태를 바꾸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우리 교육의 질을 한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불황에 빠진 출판계에 잠재력 있는 틈새시장을 제공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호기로 작용하고 있다.

요즘 대안교과서 시장이 뜨겁게 달궈지고 있다. 지난해 '국어, 국사 수업시간의 타교재 사용금지' 조항이 풀리면서, 국정교과서를 대체할 만한 새로운 개념의 교재 개발과 출판에 불이 붙은 것이다. 현재 전국국어교사모임이 개발하고 자체적으로 출판한 《우리말 우리글》(나라말)이 중학교에서 수업교재로 쓰이고 있으며, 역사 분야도 이미 몇몇 출판사가 뛰어 들어 내년 1학기를 목표로 출간준비가 한창이다. 현재 대안교과서 시장에 뛰어들었거나 뛰어 들 채비를 하고 있는 출판사는 나라말, 휴머니스트, 청년사, 푸른역사, 실크로드, 창작과비평사, 사계절, 중앙M&B 등이다. 나라말, 창작과비평사, 사계절, 중앙M&B는 국어 과목, 나머지는 역사 과목에서 각각 시장 선점을 노리고 있다.

## 《우리말 우리글》, 교사와 학생 반응 좋아

전문가들은 대안교과서의 전면적인 대두가 두가지 측면에서 고무적이라고 평가한다. 우선 제도권 교육의 여러 고질병들을 현장중심 교육으로 극복해 우리 교육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이고, 출판계 입장에서 볼 때는 잠재력이 큰 새로운 틈새시장을 확보함으로써 침체에 빠진 출판계가 활

로를 모색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나라말은 전국국어교사모임(이하 국어모임)이 자체적으로 설립한 출판사다. 국어모임은 올바른 국어교육의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한 국어교사들의 자주적 연구·실천 모임으로, 지난 1989년 창립돼 10여년간 새로운 수업 방식 개발 및 자료 보급, 연수와 강좌 개최 등 각종 연구·교육 사업을 꾸준히 벌여왔다. 이 모임은 그동안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획물들을 출판사에 의뢰해 자료 형식으로 퍼내다가 지난 1997년 아예 자체 출판사를 차렸다. 지금까지 나라말은 글쓰기 지도자료집 《7년간의 실수》와 교사용 지도서 《함께하는 국어수업》, 《나라말 중학생 문고》 등 총 14권의 단행본을 펴냈다.

나라말이 올초에 퍼내 1학기부터 전국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국어수업에 사용되고 있는 《우리말 우리글》은 대안교과서를 교육현장에 활용하고 출판시장에 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책은 일단 큼직한 크라운판형에 다채로운 편집으로 보는 이의 시선을 끌어당긴다. 총 10장으로 구성됐는데, 현장교육의 결과물들을 재가공한 점, 아이들의 실제 관심사에 초점을 맞춘 점, 아이들이 직접 참여해야 수업이 진행될 수 있게 만든 점 등이 특징이

다. 이 책은 출간되자마자 수업 부교재 및 참고자료로 주문받기 시작해 현재 3만부 이상 팔려나갔다. 국어모임의 사무국장 조장희씨(신일중학교 교사)는 이 책이 만들어지기까지 10년의 준비기간이 필요했다고 말한다.

“컨셉을 잡는 데 7, 8년이 걸렸다. 각종 모임과 강좌, 세미나, 계간지 《함께여는 국어교육》에서 수없이 논의를 거듭했다. 그러다가 몇년 전 겨우 틀을 잡았다. 집필은 지역모임별로 한장씩 맡아서 썼다. 지역 선생님들끼리 먼저 토론해서 내용을 수정하고, 그 결과를 각 지역 대표들이 모여 재검토하고 수정을 거쳤다. 집필부터 수정까지 2년이 걸린 셈이다.”

##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내용과 마케팅

《우리말 우리글》의 유통, 소비과정 또한 주목의 대상이다. 보급은 일단 여타 단행본과 똑같이 서점에서 판매한다. 하지만 출판사에 전화로 주문하는 경우가 7:3 정도의 비율로 높았다. 가격은 1만원으로 책정했는데, 책에 들어간 종이의 질, 사진자료나 디자인에 들인 공에 비해 엄청나게 싼 값이다. 그런데 조씨는 “국정교과서가 3~4천원 수준이란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비싼 편”이라고 털어놓는다.

책은 직접 학교 행정과에서 단체구입하는 경우와 아이들이 사는 경우로 갈린다. 보통 한 반 단위로 사가는 단체구입의 경우 35% 할인해준다. 이 경우 학교도서관에 보관해뒀다가 수업시간에 교사가 가져와서 가르친다. 조씨는 “여기저기 수소문해보니 단체구입이 많더라”고 말한다. “현재 한 학년에 국어교사가 8명 정도다. 만약 1, 2반에서 이 책을 교재로 선택한다고 가정해보자. 다른 반 아이들이 가만있겠는가?”

그만큼 내용에 자신 있다는 말이다. 조씨는 “기존 교과서가 지식 중심이었다. 지식은 전달될 뿐이지 참여를 유도할 순 없다. 그래서 이 교과서는 아이들의 실질적인 언어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입말문학’에 한 장을 할애했다. 또 책을 그대로 따라서 하기만 하면 한 학기 수업이 가능하게 실제 수업과정

을 모델로 삼아 제작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어모임은 내년 신학기부터 보급할 계획으로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과정 교재의 막바지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중고교 과정 역사교과서 내년 선보여

역사 교재 개발도 전국역사교사모임(이하 역사모임)에서 2년 전부터 집필팀을 꾸려 본격적으로 준비해 현재 완성을 앞두고 있다. 중학교팀을 이끌고 있는 김육훈씨(잠실고등학교 교사)는 "그동안 국정교과서는 정당하지 못한 역사 의식을 양산했고, 교육적 효과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역사서였다"며 대안교과서의 현실적 필요성을 설명했다. 고등학교팀의 신용균씨는 "역사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 모습을 생동감 있게 보여주는 것, 특히 여성·연애·결혼 등 아이들이 관심있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서술해서 관심을 유도할 것"이라며 집필방향을 밝혔다. 휴머니스트가 중학교, 푸른역사가 고등학교를 맡아 각각 출판계약을 체결했다. 교과서가 완성단계에 이르러 출판사를 구하던 중 이들 두 출판사로 낙점됐다.

중학교를 맡은 휴머니스트의 이재민 편집장은 "아직까지 초고가 집필중이어서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즐겁고 재미있는 편집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방향을 밝혔다. 또 마케팅에선 "평균적으로 한학년에 60만명으로 볼 때, 5~10% 정도를 예상독자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고등학교를 맡은 푸른역사의 박혜숙 대표는 "대안교과서를 '부교재' 정도로 인식에선 안된다. 국정교과서의 단점을 보완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를 '대체' 하려는 '운동' 차원에서 조명돼야 한다"며 출판에 뛰어난 이유를 설명했다.

### 교재보충용 기획물 개발 움직임도 있어

대안교과서는 아니지만 수업시간에 보조자료



대안 교과서는 현장중심 교육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연세 어린이 역사교실의 강의 모습과 나라말에서 펴낸 교과서.

청년사측은 최근 '연세 어린이 역사교실' (이하 역사교실)과 《초등학교 역사그림책》(가제, 전6권 예정)의 출판계약을 맺었다. 역사교실은 1998년 개설돼 지금까지 매년 여름과 겨울방학에 맞춰 고고학·문화사·생활사·시대사 등의 5개 교실로 나눠 아이들에게 역사를 강의해왔다. 강사진은 대학강사가 주축이 됐다. 이번에 계약을 맺은 책은 강의자료를 기초로 각 교실의 강사들이 맡은 분야를 개별적으로 정리해서 취합하는 방식으로 책을 엮기로 한 것. 역사교실의 왕현중 대표는 "그동안 만화한국사나 위인전류가 많이 나왔지만 너무 조잡한 수준이었고, 또 사계절의 《생활사박물관》의 경우 초등학교 아이들이 읽기에 어려운 감이 있었다"고 말한다. 그동안 참된 의미에서 어린이를 위한 역사책이 없었다는 지적이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국사의 통사적인 큰 흐름만이라도 제대로 알려줄 수 있는 책을 기획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실무를 맡은 청년사의 오석균 주간에 따르

로 활용할 수 있는 단행본 개발도 활발하다. 부교재 시장의 문을 두드린 곳은 청년사다.

면 자료사진과 함께 각 장마다 수채화풍의 세밀화를 실어 시각적인 역사 전달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집필자들이 강의자료를 골간으로 처음부터 다시 쓰다시피 하고 있는 형국이라 아직 원고가 마감되지 않고 있지만 "내년 2학기 전에 완간해서 아동 역사물 및 교과서 시장을 두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신생출판사 실크로드도 대안역사교과서를 출판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윤양미 대표는 "역사교과서의 성격이 워낙 엄밀함을 요구하는 분야고, 투자비용도 만만치 않다. 또한 아직 가시화된 출판물이 나온 형편도 아니어서 주저하고 있다"고 전했다.

나라말에서 나오는 <나라말 중학생문고> 또한 대안교과서 시장에서 한몫하고 있다. 이 시리즈는 현장 교사들이 직접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교양 문학작품을 골라서 펴내는 것으로 교사들의 호응이 높다. 나라말 편집부의 김희진씨는 "앞으로 중고생용 신화, 전설, 민담시리즈를 적극 개발할 생각"이며 "그동안 창작과비평사, 중앙M&B 등에서 출판제의가 왔는데, 앞으로 대형 기획물이 마련되면 협력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강성민 기자